

실패 걱정 말고 창업에 도전하세요!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쳐서 힘들었죠”
지난해 창업한 한 중소기업 CEO의 경험담입니다. 보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친인척 간에도 ‘보증은 절대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들이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통해 창업자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좌절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지 않던 상황도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

'14.9월말 기준 99건, 약 85억원 연대보증 면제
(대출금액 기준)



개선 전

관련 제도 부재

개선 후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대출금액 중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14.2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 10%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 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

'14.2월 시행 후 9개월간 2,675개 기업, 약 23억원의 보험료 할인 추산



개선 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미미

개선 후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증보험을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 거래를 지속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험료 대비 10% 할인 인센티브 제공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14.2월)

08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제도 개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료는 전액 돌려 드립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항의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K씨는 얼마 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업상 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음이 있어 지역신보에 보증대출을 신청했다가 지인이 돈을 빌려준 덕에 이를 취소했지만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제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보증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감액 실행된 경우, 또는 대출이 늦어진 경우 등과 같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엔 수납 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피보증인 금융비용 절감

'13년도 기준으로 추정, 1만7,760건
약 5,580만원 환급 예상



개선 전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보증서 반환일까지 보증료를 수납

개선 후

보증서 반환일에 상관없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환급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중기청, '14.7.)

성실납세 중소기업, ‘담보 없이’ 납기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원하는 시기에 맞춰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Y씨의 고충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번번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하는 Y씨는 1년에도 4번 이상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기에 드는 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Y씨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소법인들에게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 담보 없이 납기연장이 가능해져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유예 및 납기연장 가능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혜택
이용 실적
(‘11년) 5,260건, 2,114억원 → (‘12년) 4,642건,
2,817억원 → (‘13년) 3,274건, 2,644억원



개선 전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개인에게만 세금포인트 부여,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 제공

개선 후

모든 개인 납세자 및 중소기업에게도 세금포인트를 부여
‘세금포인트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달 (국세청, ‘14.2월)